

## W. Wundt의 생애와 언어심리학

趙 明 翰

서울대학교 心理学科

Wundt는 Baden의 Neckarau에서 1832년 8월 16일에 태어났다. Wilhelm Max라고 이름지워졌으나 가운데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의 제자들 중 Max라고 희미하게 기억해낸 사람은 풍부한 심상의 소유자이고 아마도 기억의 천재 E. B. Titchener가 고작이었다(Titchener 1921 $\alpha$ ). 어린 시절의 Wundt는 장난기도 없고 친구도 없는 진지한 소년이었다. 형과 누이가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탓으로 집안에서도 거의 혼자 생활하였다. 아버지는 루터 교회의 교구장으로 청빈한 분이셨다. 아버지 교구의 목사가 Wilhelm의 교육을 맡아, 심지어 같은 방을 쓰며 함께 생활하였다. 소년 시절의 생애는 생략하겠거니와, 그의 이러한 비사교적이고 진지한 성격은 여든이 넘도록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이 열 아홉에 Tübingen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불행히도 곧 부친이 타계하셨다. 그는 그의 청빈한 가정과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Heidelberg와 Berlin대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의학 공부를 택하였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만 없었다면 언어학을 포함한 소위 다른 정신과학을 대학 시절부터 전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1856년 Hei-

delberg에서 조교로 지내면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 이듬해 Privatdozent로 발령 받았다. 이즈음의 그의 연구는 대학 시절과는 달리 임상도 해부학도 아닌 생리학이었다. 1858년부터 그의 연구사에 길이 남는 *Beiträge zur Theorie der Sinneswahrnehmung* (이후부터 Beitrage로 약함)을 집필 및 출간하기 시작하여 1862년에 완성하게 된다. 같은 해 1862년부터 *Vorlesungen über Menschen und Tierseele* (이후 Vorlesung이라 약함)가 출간되기 시작하여 1865년에 완성을 보게된다. 이들 저서의 내용은 후에 개관하겠다. 이시기 즉 1858년에 H. L. von Helmholtz가 Heidelberg에 부임하게 되고, 자연히 그는 von Helmholtz의 조교역을 맡게 된다. 두 사람사이의 불화는 널리 알려질 사실이지만, 서로 헐뜯은 기록은 남은 것이 없고, 오히려 존경의 글귀가 Beitrage에 적혀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가 출간된 것은 Heidelberg 시절의 마지막 해인 1874년인데, 이 연구가 von Helmholtz의 영향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같은 학문의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은 흔적은 없으며,

비록 Wundt가 1864년에 ausserordentlicher Professor로 승진되었으나 끝내 von Helmholtz의 교수직을 물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말하자면, 그의 출세의 길은 늦었고, 심지어 Kant보다도 수련 기간이 길었다. 그러나 마침내 1864년에 Zürich에서 교수직을 맡을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듬해인 1865년에는 Leipzig에서 chair를 얻어 여생을 보내면서 일생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수행하게 된다.

그의 일생의 학문적 추구는 단순한 생리학 연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간 이해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와 동일시하였다. 이 때문에 후대의 심리학자들에게 간혹 오해를 사는 것도 사실이나, 실상은 이 때문에 철학에서 심리학을 독립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인간이해는 무엇보다 Kant의 개념세계와 접근방법에서 탈피하려는 것이었다. Titchener에 의하면 초기 저서인 *Beiträge*에서 감각의 지각을 다루고 있는 까닭도 Kant의 인식론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C. H. Judd는 Wundt에 대한 회고기에서 그가 쓴 논문의 어떤 귀결의 근거를 Wundt가 문기에 영접결에 "a priori wahrscheinlich"라고 답하였더니 "A priori ist gar nichts wahrscheinlich" (Titchener, 1921b)라고 욕박지르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강의할 때 그가 즐겨 하던 말, "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참으로 Wundt다운 경구이다.

요컨대, Wundt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했다. 그것은 곧 실험심리학이다. 그는 *Beiträge*에서 이미 실험심리학의 기초를 닦았고, 실상 실험심리학이란 용어는 Fechner도 Helmholtz도 쓴 적 없었고 Wundt가 최초로 사용한 어휘이다 (Titch-

ner, 1972). 뿐더러 최초로 그는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하였다. 최초의 실험실과 그 연대에 대해 더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직접 그의 진술을 인용키로 하겠다. 아래의 인용문은 Leipzig 대학교 500년 축제를 위해 방문한 귀빈들에게 그가 직접 자기의 실험실을 소개한 글이다.

"초기에 실험 심리학 연구소(Das Institu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는 아주 보잘것 없는 것으로 출발했다. 현 소장이 이대학교 교칙에 1875년 10월 1일 취임하였을 때 교무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왕립 당국에 의해서, 실험연구를 위한 기구 및 심리학 강의를 위한 실증수단에 활용하도록 이전의 기숙사 건물(Konviktgebäude)안의 조그만 강당을 위임받았다. 최초의 몇 학기에는 콜로퀴엄의 형식으로 수행된 「심리학 연습」과 관련해서 강의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던 것이 1879년 가을부터는 이 방에서 학생 개개인이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Wundt, 1910)."

그러므로 심리학 실험실—더 정확하게는 「실험 심리학 연구소」—의 사실상의 창설은 1875년이다. 초기에는 이 연구소가 강의에 필요한 실험 Demonstration에 그치었다. 그러나 곧 실험에 사용되어 1879년에는 첫 업적으로 M. Friedrich의 "Über die Apperzeptionsdauer bei einfachen und zusammengesetzten Vorstellungen"이 완료되었다. Wundt의 어휘 사용빈도 중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가 psychischer Vorgänge였다고 하면 이 심리과정에 대한 실험을 첫 업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연구가 쌓임에 따라 1881년부터 *Philosophischen Studien*이라는 잡지가 빛을 보게 된다. 비록 철학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대체로 심리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명기

해두어야겠다. 명실공히 그리고 내실이 함께 갖추어진 연구소라 하겠다. 구태어 Wundt가 1879년을 창설의 해로 잡고 있는 것은 그의 실증적이고 업적 위주의 학문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심리학 실험실의 창설 연도에 대한 논쟁은 오랜 싸움이다.<sup>1</sup> 처음 문헌상에 나타나기는 Wundt가 작고한 다음 해인 1921년에 B. T. Baldwin이 쓴 추모사에 나타난다. 그는 Wundt가 자기 자신을 강의실에서 Herr Geheimrat Professor Doctor Wilhelm Wundt라고 자칭하였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형식주의를 존중하는, 위엄과 견제적인 교수라고 평하면서 W. James가 1875년에 Harvard의 Lawrence Hall에서 실험 심리학 강의를 개설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Judd, 1921). 실험심리학 연구소가 법정 연구소가 된 해가 1894년이라는 논쟁도 R. S. Harper뿐만 아니라 E. G. Boring 역시 1968년에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Boring의 서술은 매우 중립 객관적이어서 1979년엔 “de facto institute”이었고, 1894년에는 “de jure”연구소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Boring, 1968). 하지만, 무엇보다 Wundt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1891년 가을부터 그리하여 소장은 자신의 자력으로 우선 개인 조교를 채용함으로써 부족을 메꾸고, 1894년 여름에는 왕립 당국이 두번째 조교를 공식 채용케하였다”(Wundt, 1910).

위의 진술로 보아 공식 인가는 이미 1875년에 얻은 것이다. 1894년에는 공식 조교가 허용된 해이다. 첫 인용문에서 “아주 보잘 것 없다”는 표현은 연구소에 방이 하나뿐이었다는 데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1883년 가을 학기부

터는 방 수도 늘어나고, 1885년에는 Konviktgebäude에서 Grimmaische Steinweg에 이사하게 됨에 따라 대형 강의실 두개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15개의 방을 갖게 된다.

역사적인 사실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de jure”연구소는 1875년에, 그리고 “de facto”연구소가 1879년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75년에 Wundt는 실험실을 만들 계획을 G. T. Fechner와 의논하였을 때 Fechner는 “당신이 참으로 몇년 안에 온전한 심리학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고 한다. 바로 그 해에 Wundt는 왕립당국에 허가를 얻어 자신의 실험기구들을 가지고 실험실을 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가 1879년부터 시작됨으로써 그는 Fechner의 논평이 이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듯 싶다. 후대의 미국학자들이 우기는 1894년은 실제로 공식적인 인가의 해가 아니라 단지 공식적인 조교 임명의 해일 따름이다. 「심리학 연구소」의 창설 50주년 잔치를 1925년 11월 Wundt 사후에 가졌던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위의 사실은 확고하고 부동하다(Volkelt, 1925).

이 실험실에서의 주된 업적은 PP의 뜻을 계승하는 실험들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철학연구」와 후에 이름을 개작한 「심리학연구」에 수록되어 있다. 곧 의식을 중심으로 한 인지의 연구이다. Wundt에게 있어서 심리학은 직접 경험의 학이었으므로 이 연구야말로 일반 심리학의 정수라고 하여야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Gestalt학자들이 이를 요소주의라고 공박하고 행동주의가 사람에게서 의식을 제외시킴으로써 살아 있으나 죽은 연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래에 인지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의 이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이 새삼 드러났다. 단 이것을 개관하는 것은 이 논문의 밖의 일이다. 단지 언어

1 우리나라에서의 최근 논쟁은 心理學會報 1979년 8월(25號) 및 9월(26號)을 참조——편집자註.

와 관계되는 것만을 요약키로 하겠다.

Wundt는 본래 근엄하지만 동시에 활력적인 사람이었다. 근엄하다는 것은 그의 용모에서부터 풍겼다. 머리부터 발까지 검정 의장으로 치장하고, 시각 실험 때문에 한 눈의 시력을 상하여 수업이 그득한 얼굴에 도수 높은 안경을 낀 모습을 상상하면 족하겠다. 생활 관습에 있어서도 근엄하였다. 엄격한 시간 관념은 Kant의 시계보다 덜 정확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사회적 태도와 세계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수주의자여서 미국인 제자들에게 "ganz-amerikanisch" 혹은 "Der amerikanische Idealismus"라고 종종 비난했던 임보로 그들에게서 미움을 샀으며, *The London Times*는 그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그가 세계대전에 찬성 서명하기 전에 세상을 떠터라면 더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하였다. 동시에 그는 활력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저술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아마도 S. Hall이 계산하였던 모양인데, 1853년부터 저술을 시작하여 별세할 때까지 67년 동안 53,735 페이지를 활자화하였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 2분마다 한 단어씩 쓴 셈이 된다. 다사가였던 Herbert Spencer조차 12,000페이지를 저술하였다니, 그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니할 수 없다. 국수주의자였지만 보수주의자는 아니었다. 유물론에 반대하였고 노동자의 자유를 부르짖었다. 다른 무엇보다 폭 넓은 관심의 소유자였다. 정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대형 강의실의 매번 만원이었던 까닭도 정연한 논리와 유려한 말씨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예 철학과 명예법학 박사의 학위도 그 분야의 공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엄격한 실험 방법론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학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여러 주제와 전반적인 과

학 방법론에 관심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관심은 언어연구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Leipzig에 부임하기 직전 Zurich에서 귀남 철학 강의를 위촉 받았을 때 그의 실제 강의 내용은 언어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Leipzig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무명의 학자였다. 따라서 Wundt를 도셔 오는 일에 대해 Leipzig 대학신문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를 환영한 것은 엉뚱하게도 언어학 교수들이었다. 이 당시 Leipzig에는 A. Leskien, H. Paul 등의 패기에 찬 Junggrammatiker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가 Wundt보다 나이가 어렸고, 나이가 젊다는 뜻에서만 아니라 패기에 차있다는 해학적인 뜻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이들을 소장문법 학파라고 불렀다. 소장문법 학파는 언어와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언어변화를 지배하는 요인은 어느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라고 믿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칙성을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캐려고 하였다. 이들은 Wundt의 선배가 자기들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Wundt를 환영하였다.

소장문법 학파들은 아마도 Wundt의 *Beiträge*와 *Vorlesungen*을 읽었던듯 싶다. *Vorlesungen* 첫권 서문에서 Wundt는 "의도적인 실험이 중지되는 곳에서 심리학자들은 역사를 실험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철저하게 실험 심리학자였지만 실험 방법만으로 탐구될 수 없는 인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각과 기억의 문제를 넘어서는 언어와 사회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연구접근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Beiträge*와 *Vorlesungen*에서 일반 심리학의 보조 과학(심리학)으로 언어와 사회의 인구를 강조하고 있다. 전자는 실험 심리학의 영역이며 후자는 문화의 진화론적인 변천사에서 탐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점이 소장 문법학과 견해

를 같이 하는 것이다. 게다가 Wundt도 Jung-grammatiker도 철저한 실증주의의 숭배자들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후원으로 Leipzig당국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리학과 언어학의 연구를 겸유하는 철학교수의 chair를 Wundt에게 제공하였다. Wundt의 첫 강의는 언어와 사고에 관한 것이었고 대거 Junggrammatiker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더니 이들의 환영이 얼마나 따뜻하였는지를 짐작하고 남는다. 이러한 역사 이야기는 실제로는 심리학사에 기록된 것은 없고 언어학사에서 찾아낸 뒷이야기들이다. Wundt 자신은 이를 회고하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분야에서 으뜸가는 권위자인 한 사람—Junggrammatiker인 Leskien을 가리키는 말이다—의 격려와 인정은 내가 새로운 언어학의 발견에 심리학적 설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Blumental, 1970)”라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Wundt는 남의 견해와 이론에 그대로 순응하기에는 너무나 고집이 센 독자적인 연구자였다. 그는 실험 심리학 연구소에서 인지과정에 관한 실험을 하는 한편, Leipzig에 온 후 1880년도에 출간한 첫 저서는 *Logik*이었고 제 1권의 부제가 *Allgemeine Logik und Erkenntnistheorie*이라고 달았다. 이 저서는 후대의 심리학자들을 당혹시키는 저서이기도 하려니와 당시의 소장 문법학자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저작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저서에서 과학철학, 즉 제반 과학에서 찾아낸 결과들이 어떻게 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Junggrammatiker들이 희망한 것은 언어심리학이 아닌 논리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이미 Wundt는 *Beiträge*에서 제시하였었다. 어찌보면 그의 학문 연구사는 *Beiträge*와 *Vorlesungen*에서 시사한 바를 착실히 수행하고

같이 다듬는 역정이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그는 「논리학」으로 그의 연구를 끝낸 것이 아니다. 출창 언어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Junggrammatiker를 실망시켰다. 점차로 Wundt가 Wilhelm von Humboldt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언어가 인간의 지각, 생각 및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von Humboldt의 결론을 그대로 신봉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를 인지과정으로 파악하고 일반 인지이론의 테두리에서 언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Junggrammatiker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견해는 지나치게 실리주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H. Paul과 논쟁을 벌리게 되고 끝내는 소장 문법학과와 결별하게 된다. Paul의 견해는 문장이란 관념들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고, 반면 Wundt에 의하면 연합의 기재보다 더욱 심층에 있는 창조적인 통합이 곧 문장 형성 과정이라는 것이다.

Wundt의 이러한 언어관은 1900년도 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여 1920년도에 완간된 *Die Völkerpsychologie*에 집대성되었다. 이 저서는 그의 저서중에서 가장 방대한 책이고 가장 오래 걸려 집필한 책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야심적인 저서이고 그의 학문의 끝마무리를 짓는 저서이기도 하다. 10권으로 구성된 이들 저서 중 첫 두권을 *Die Sprache*로 할애하고 있다. *Die Sprache*는 1900에 초판이 나온 다음 1904에 개정판을 낸 후 다시 1912년에 개작하였다. 사회 혹은 민족심리학 중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사회와 언어를 함께 묶은 것은 거의 언어연구의 학적인 추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M. Lazarus와 H. Steinthal이 엮은 잡지의 이름이 *Zeitschrift für Völkerpsychologie und Sprachwissenschaft*이다. 언어학사에서는 이들을 von Humboldt에서 비롯되

는 심리주의 학파로 묶고 있으며, 물론 Wundt도 이들 계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Volkelt는 Die Völkerpsychologie의 뿌리를 다른 문화과학들과의 공동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된 탓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Lazarus와 Steinthal이 Wundt에게 크게 영향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Volkelt, 1922).

민족 심리학은 개인의 삶이 아닌 공동의 삶, 즉 Volksseele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Volksseele는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소산이다, 개인의 의식은 그의 정신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전래되는 표상과 언어 그리고 언어의 내포된 사유의 형식은 주관적인 경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Wundt는 민족심리학의 족보를 두 면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Volksseele라 하더라도 그 원천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예를 언어에서 소리변화의 현상에서 들추고 있다. Volksseele는 표상이 언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개인 의식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민족심리학의 또 다른 족보는 Volksseele를 다루는 제반 과학들이 끝내는 심리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그 가장 좋은 본보기로 언어와 신화를 다루는 Philologie, 즉 어문학이 심리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요컨대 민족심리학에서 언어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Die Sprache* 1권은 *Ausdrucksbewegung* — 이것은 신체 심리적인 삶의 표현은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및 몸짓 언어, 그리고 언어소리 즉 음운과 음운변화의 문제를 역사적 내지 진화론적인 변천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것들이 언어의 바깥 체계이다. 이 표면 과정을 지배하는 법칙은 요소들 사이의 연합의 원리이다. 그의 PP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감각 신체동작의 과정과 상응한다. 이들 바깥 체계를 비교 심리

학 혹은 발달심리학적으로 고찰한 결론은 다른 표현의 운동이나 소리와는 달리 언어는 결국 표상의 작용어라는 것이다. 이 표상과정은 1권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형성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 수준이 언어의 내면구조이다. 표면 과정은 연합의 기제로 형성되는 반면 내면과정은 통각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단어 통각은 자연적인 사유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니와, 그것은 단어의 심적 구성을 원천으로 하는 동화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Die Sprache* 1권에서 서술하고 있다.

표상은 통각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통각이란 의식의 장 안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다. 지각도 외적으로 지향된 감각작용인 반면, 통각은 내적으로 지향된 경험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는 작용이다. 지각된 것은 요소의 집합이며, 통각된 것은 관계의 구조이다. 개별 요소들은 전체표상(*Gesamtvorstellung*)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Die Sprache* II권에서는 문장형성의 통사과정을 다루고 있다. 단어라는 개별 표상들이 분절하여 문장의 전체표상을 형성하는 통각 기능을 다루고 있다. 문장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einheitliche Ganze*)라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Blumenthal이 1970년에 *Language and psychology*에서 주요 부분을 번역하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Wundt의 언어 심리학이, 다름 아닌 인문사회과학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N.Chomsky의 변형생성 문법이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소들 간의 연합이 아니고 관계의 분절이라는 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진행되는 자극 반응의 결합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체제화되는 *tree diagram*이라는 점, 그리고 표면구조가 아니라 의식 속에 일어나는 통각과정의 심층구조라는 점 등에서 실로 생성 문법은 이미 Wundt에 의해서 이미 제안된 것이

다. Wundt의 언어심리학이 von Humboldt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사실도 Chomsky가 Humboldt를 자신의 할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과 우연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Wundt는 *Die Völkerpsychologie*를 집필하고 개작 완성한 후 아마도 그의 한 일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신경과 근육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인간과 문화의 가장 고귀한 정신기능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살살이 편력하였다. 1917년 교수직을 퇴임하고, 자신의 심리학 연구의 자서전, *Erlebtes und Erkanntes*를 집필하고, 붓을 놓은 다음 1920년 8월 31일 그의 88세의 생신을 지낸 40일 후에 눈을 감았다. 가장 애제자였던 O. Külpe보다도 더욱 Wundt에 충실했던 Titchener는 “나는 감히 Wundt가 단지 실험심리학의 창시자일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창시자임을 말하고자 한다(Titchener, 1921)”고 애도하였다.

### 参 考 文 献

Blumenthal, A. L. *Language and psychology: Historical aspects of psycholinguistics*. New York: Wiley, 1970.

Boring, E. G. Wundt, Wilhelm. In 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ian, 1968. pp. 581-586.

Judd, C. H.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Titchener, E. B. Wilhelm Wundt.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21, 32, 161-178.(a)

Titchener, E. B. In memory of Wilhelm Wundt. *Psychological Review*, 1921, 28. 184-185. (b)

Titchener, E. B. *Systematic psychology: Prolegomen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2.

Volkelt, H. *Die Völkerpsychologie in Wundts Entwicklungsgang*. Erfurt: Keyfersche Buchhandlung, 1922.

Volkelt, H. Über die Forschungsrichtung des Psychologischen Instituts der Universität Leipzig zu seiner Fünfzigjahrfeier am 21. November 1925. Erfurt: Stegner, 1925.

Wundt, W. *Beiträge zur Theorie der Sinneswahrnehmung*. Leipzig: Winter, 1862.

Wundt, W. Das Institu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zu Leipzig. *Philosophische Studien*, 1910, 5, p. 19., p. 282.

Wundt, W. *Völkerpsychologie: Eine Untersuchung der Entwicklungsgesetze von Sprache Mythos und Sitte*. Erster und Zweiter Band: *Die Sprache*. Stuttgart: Kroner, 1922.